

歷史哲學에의 關心

分析으로부터 綜合에 (中)

韓雪野

所謂 史家로서 自他 共認하는 어떤 史家가 일직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最近 世史 中 우리가 直接 目睹하고 또 들은 事實을 記錄하는데 있어서도 史家마다 見解를 달리하는 例가 非一非再이니, 몇百 몇千年 前 일을 어찌 미들 수 잇스라고……그리며, 歷史란 結局 眞相과는 全然 딴 것일 수도 잇는 것이오, 또 多分의 虛構가 석겨 잇는 것이리라고 하여 數十年의 自己積功에 對하여 懷疑하고 幻滅을 表明하는 것이었다.

나의 愚見으로 보면 社會의 全體性和 歷史 推移의 本能을 把握하지 못하고 다만 明滅하는 個個의 事象에 膠着하는 史家는 만흐나 적으나 한 가지로 이러한 懷疑와 幻滅에 빠지지 안힐 수 업슬 듯하다. 이 모양으로 大概 이른바 史家들은 連綿하는 史實을 博識強記的으로 머리에 잡아 너으라고만 하고, 個個의 史實의 底流와 紐帶를 捕捉하라 하지 안는 것이다.

또 여기에 이른바 오늘의 史家에 對한 不滿이 잇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史家와 史學의 出現을 待望하는 理由가 잇는 것이다.

以上을 다시 한번 簡單히 要約하면, 個別로부터 全體에 또는 分析으로부터 綜合에의 轉向을 意味하는 것이다. 卽 個別的, 分析的 研究의 時代로부터 歷史的 諸事實 又は 個個의 歷史的 諸學問(科學, 宗教史, 藝術史 等等)의 總體的, 綜合的 研究에의 轉向의 必要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짧은 時日에 이루어질 簡單容易한 일은 아니다. 두말 할 것 업시 分析 업시는 綜合이 업는 것이다. 그러므로 分析的 歷史研究가 綜合的 研究에 先行하는 것도 必然한 事勢이다. 그리고 이 分析은 여러 가지의 觀點과 方法과 概念이 混淆한 普遍史에 對한 反動으로도 勿論 볼 수 잇는 것이다.

勿論 歷史研究는 究竟 全體에 向하여지지 안흐면 안될 것이오, 또 그러케 되지 안힐 수도 업는 것이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른바 歷史를 構成하는 諸部分의 知識이 업시는 이 全體에의 歸納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此等

諸部分을 위선 獨立的, 分析的으로 研究하지 안하면 안되는 것이다. 歷史的 諸學問에 있어서 보더라도 科學, 藝術, 宗教 等等을 그 文化의 內容的 諸領域에 따라 相互 分離하여 獨立的으로 取扱하여 各各 理論的 觀點 아래에서 抽象的으로 觀察하는 한 개의 特殊化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自然科學과도 共通되는 方法으로 이 方法에 依하여 諸文化科學의 論理學은, 此等 諸科學에 있어서 나타나는 各個의 概念을 各各 規定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物理學, 化學, 生物學, 機械學 等 自然科學은 그것이 한번 自然의 全體를 諸部分 領域에 있어서 展開하게 되면 벌써 分解된 全體性을 다시 各個 領域 內에서 組成하라는 科學的 關心을 가지지 안는 것이나, 諸文化科學에 있어서서는 그와 달리 恒常 窮極에 있어서 全體性이 問題되는 것이다.

卽 抽象에 依하여 生起하는 個個의 文化科學的 史學—卽 藝術史, 宗教史 等を 個別的으로 分析, 研究할 수 잇슴은 以上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그러나 한번 그 變遷, 發展에 對한 一層 깊은 理由를 發見하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自然 不斷히 本來의 그 個別的 領域을 뛰어넘어서 藝術 或은 宗教의 彼岸, 아니 차라리 그 밋홀 흘르고 잇는 『時代精神』, 『世界觀』이라는 것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諸文化科學 卽 藝術, 宗教, 科學에 對한 關心의 裏面에는 또한 恒常 個別을 超越한 先個別的인 總體性이 橫在해 잇슴을 알 수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結局 그 全體性에 □치 안코는 局限된 個別的 領域의 完全한 認識을 얻을 수 업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歷史的 文化科學에 있어서 分析的, 特殊的 研究가 막다른 골목에 들지 안힐 수 업는 理由를 發見하는 同時에 分析으로부터 全體에의 轉餉의 必要를 또한 認定하지 안힐 수 업는 것이다.